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첫 산모 맞이

전북 1호 산후케어센터 본격 운영
365일 24시간 돌봄 체계 가동
다동이, 시·도민 단계별 할인 혜택
테라피·요가·건강 상담 등 진행

전북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남원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첫 산모를 맞이하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산후케어센터 최초 입소 산모는 남원 거주 쌍둥이 출산 산모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2일 산후조리원을 찾아 산모와 가족을 격려하고 출산 기념 육아용품 등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다온'은 365일, 24시간 전문 돌봄 체계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남원시 총정로 3730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2410㎡(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산모실, 신생아실, 맘카페,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남원 시민과 그 자녀, 전북도민, 지리산권(구례·곡성·함양·산청·하동군) 지자체 산모까지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원이다. 이 중 다동이 출산 시민 등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자는 70%, 시민 50%, 전북도민 30%, 지리



12일 전북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남원 산후케어센터 다온'에 첫 산모가 입소한 가운데 최경식(맨 오른쪽) 시장이 조리원 관계자, 산모 부부와 함께 기념 활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산권 산모와 시민 자녀 10% 등의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산모 마사지, 아로마테라피, 산후요가, 소아과·산부인과·건강상담, 초점책 만들기 등 산모 회복과 육아 초기 적응을 돋는 맞춤형 산후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희망하는 산모는 분만 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매월 1일부터 5일 까지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6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과 첫 산모 입소는 남원시가 출산 전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산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공 돌봄 인프리를 지속 확충해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시민 1인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결혼이민·영주권자 포함… 19일~2월 13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고불가와 경기 침체로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9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난 2024년 말에 이은 두번째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전 시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

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주 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분인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14세 이하 아동의 지원금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액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은 5월 31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견전한 소비 문화를 위해 유통 및 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다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서울·전주 '고창장학숙' 입사생 모집

고창군장학재단, 서울 29명·전주 53명… 다음달 3일까지 신청

고창군과 고창군장학재단이 수도권과 전북권 대학에 재학 중인 지역출신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를 위해 서울과 전주의 고창장학숙 입사생을 모집한다.

서울장학숙 29명, 전주장학숙 53명 등 총 모집 인원은 82명이다.

장학숙은 책상, 침대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

고 있으며, 취사시설을 마련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 또는 전북권 소재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과 신입생, 휴학생 중 복학생이다.

분인이나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까지이며 고창군 인재 양성과 방문 신청하거나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고창장학숙 운영규정 배점기준을 토대로 학업성적과 생활 정도를 종합 평가해 진행된다.

결과는 2월 13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19일 입사설명회 후 입사하게 된다.

입사생의 거주 기간은 1년, 보증금은 10만원이며 서울장학숙은 공과금 포함 월 22만원, 전주장학숙은 월 2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2026년 남원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 흠피 계재…민생지원금 등 68개 시책·제도

남원시가 새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도와 정책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민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26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공지에는 올해 새롭게 도입·변경·확대되는 주요 시책과 제도들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제, 산업, 농업, 복지 등 8개 분야 68개의 시책과 제도가 담겼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10건 ▲농촌·농업 9건 ▲문화·관광·교육 7건 ▲복지·건강 9건 ▲노인·장애인 7건 ▲아동·청년·외국인 13건 ▲주거·환경·안전 6건 ▲행정·시민생활 7건이다.

경제·산업 분야에는 내달 2~27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 내용이 담겼다.

농촌·농업 분야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청년농 및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벼 병해충 공동방제 확대(3회), 농업 재해예방 강화,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비용 지원, 온라인 판로·스마트팜 지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로는 문화누리카드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제96회 춘향제 기간 광한루원 무료 입장 및 차박존 운영, 한옥숙박 스테이플트 확장, 온라인 학습플랫폼 도입 등이 있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광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개시, 무료간병·일상돌

봄 서비스 확대, 그냥드림 지원사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이 시행된다.

노인·장애인 분야로는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도입,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도입, 병원동행·목욕비·맞춤돌봄 지원 확대, 노인의 치·임플란트 지원, 무상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아동·청년·외국인 분야에서는 아동수당·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 한부모·아이돌봄·여성청소년 지원 강화, 청년 도전·창업 지원, 디자녀 기구 폐밀리카 지원, 지역기반 비자사업 지원 등이 있다.

주거·환경·안전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임대주택·복지안전주택 운영, 라돈 저감사업,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AI 기반 도로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등이 이뤄진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상수도 요금 동결 및 디자녀기구 감면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강화, 민원실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 등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 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멸종위기' 황새 80마리, 고창 해리천서 월동

2023년 67마리 이후 최대 규모… 기후 좋고 먹이 풍부



고창 해리천 황새.

고창군은 천연기념물(제199호)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새 80여마리가 해리천 일대에서 월동 중인 모습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60여마리, 2023년 67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최대 규모다.

고창군은 해리천의 환경적·지리적 특성이 황새들의 '겨울집'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리천은 해수 가 유통되는 자연 하천이라 추위 속에서도 수면이 얼지 않고, 주변에는 미꾸리나 갯지렁이 등 황새가 선호하는 먹이원도 풍부하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황새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먹이 주기와 환경정비

등 서식지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에는 공得罪면 예전리로 등지탑을 이전해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황새 개체 수 증가로도 이어졌다.

2023년에 태어난 '찬란(G66)', '행복(G67)', '활력(G68)' 3마리와 2024년에 태어난 '노을(K27)', '푸름(K28)', '오순(K29)', '도손(K30)' 4마리는 서해안 일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고장의 건강한 생태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태어난 아기 황새 3마리(K93~95)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인증구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출추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층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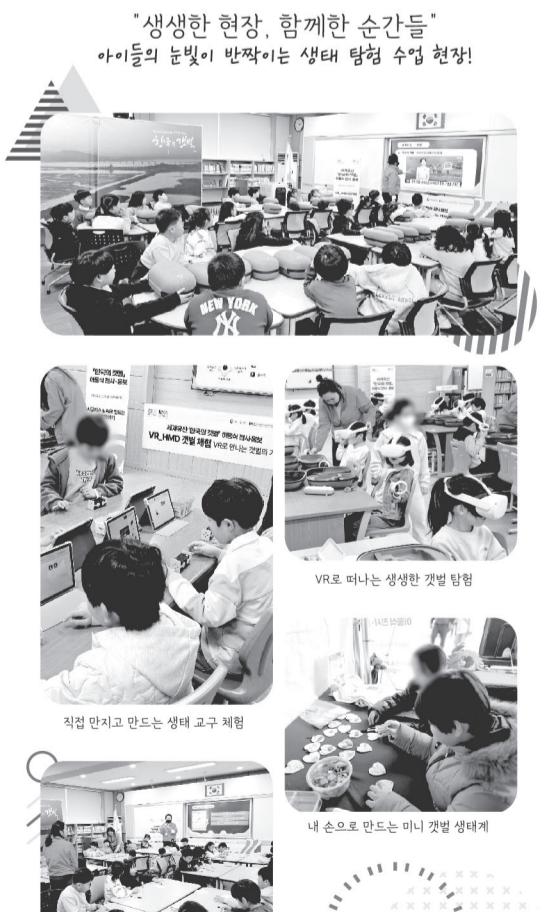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특이ティ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 철새이동
- 철새의 먹이활동
- 서식굴
-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 평원에 영역싸움
- 갯벌의 청소부 업무
- 염생식물의 역할

